

한예종 직원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 보고

1.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8. 2. 5. ~ 2. 8.(4일)
- (조사인원/조사방법) ○ ○ ○, ○ ○ ○ / 실지조사

2. 조사결과

① 전문경력관 나군 채용 관련 의혹

2016년 9월에 진행된 한예종 전문경력관 나군(미술공방관리) 공무원 채용 관련, 최종합격자(□□□)는 면접위원 3명 중 1명(□□□)의 □□시 □□□□교육원 □□□□□과 제자였으며, 실기시험에서 작품도 완성하지 못했고 경력사항도 다른 응시자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음

- (□□/합격자)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석한 □□□과 사제관계*로 확인되었고, 명절 안부인사를 드리고 동문회에 참석**하여 만났었으나, 한예종 응시 및 면접 과정에서 청탁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

* □□□□시 □□□□교육원 □□□□□과 연수과정(2007.3.2.~2008.2.22.)에서 실기지도 선생님이었음

** 명절 전후로 문자나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으며, 동문회에서 3~4차례 만난 적이 있으나, 3년 전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음(2016.5.7. 본인 결혼식에 참석여부를 모르고 있었음)

- (□□□/면접위원) 면접심사에서 응시자 2명*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여 □□□가 합격된 것으로 판단되며, 승낙서(서약서)**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 제44조(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) 위반임

* □□□는 □□□□교육원 연수원 재직(2005~2012) 시 실기 지도 제자였고, □□□ 결혼식에 참석하였음(□□□와 직접 인사하지 못하였고, 참석한 제자들과 점심을 먹고 헤어졌음)

□□□은 국제대회, 전국대회 등에서 대회 참여자들의 인솔 지도교사로서 인사 및 애기를 나누었던 사이였음

**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 및 응시자와 업무유관 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함

- 당시 면접심사(최종합격) 결과

순위	성명	면접시험결과			비고
		상	중	하	
1		7	8	0	합격
2		7	7	1	2위
3		6	8	1	3위

- 회피 시 면접심사 결과, □□□ 탈락 및 재면접*(□□□, □□□)

순위	성명	면접시험결과			비고
		상	중	하	
3		5	5	0	3위
1		6	4	0	동점합격
1		6	4	0	동점합격

*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(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) 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접 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

○ (담당자) 내부 직원이 응시할 경우 심사위원은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어 한예종 미술원, 관련 단체, 협회, 대학 등 추천을 받아 POOL로 구성하여 전형별 심사 3일~1주일 전에 섭외하였으며,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전 주의사항, 심사방법, 승낙서(서약서) 내용을 설명하였음

- □□□ 경우 주요경력사항에 □□□□교육원이 미기재 되어 사제 관계를 알지 못함

○ (실기시험)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였고, 실시 심사위원 협의로 시험시간 내 최종 작품(미완성품)에 대한 심사를 통해 3명이 합격(5명 중 1명은 중도포기)하였으며, 심사과정에서 특혜 등 비위는 발견되지 않음

☞ 심사위원 □□□에 대해 면접 응시자 2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여 사제관계였던 □□□가 합격한 비위의혹을 밝히기 위해 ‘수사의뢰’ 조치

② 대학회계 8급 채용 관련 의혹

< 2017년 11월에 진행된 한예종 대학회계 8급 직원 채용 관련>

- 채용공고를 최소화(한예종 및 나라일터만 공고)하고 서류접수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(3일)하였으며, 한예종의 해외협력방안 기획안을 필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존 내부직원들에게만 유리하게 함
- 채용당시 한예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던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한 후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부정채용 함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심사위원 3명의 개인정보와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의 개인정보(응시번호, 성명, 학력, 주요경력 등)를 유출함

- (채용공고) 채용공고는 한예종 및 문체부 홈페이지, 나라일터, 대한민국 공무원되기를 통해 12일('17.11.20~12.1.)간 진행되었고, 서류접수는 3일(11.29~12.1.)간 실시하였으며, 직무수행계획서* 제출은 채용분야 담당직무와 관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동일한 적용으로 응시한 내부직원들에게 유리한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

*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응시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, 수단, 방법, 추진일정 등을 기술(자율양식, A4 5매이내+요약서 A4 1매)

- (채용과정) 「한국예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」 제5조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였고, 한예종 경력·재직자가 지원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는 등 정황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

- (개인정보 유출 / 인사담당자 행정7급 □□□)

- 2017.12.8. 15:50경 한예종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을 발표하면서, 서류심사결과 자료*를 파일로 첨부하여 게재함(게재 후 가사로 16:20경 조퇴)

* 심사개요(심사위원 성명, 학력·경력, 연락처 등), 시험방법, 심사결과(합격자 성명, 생년월일, 학력·경력 등)가 기재된 자료

- 17:50경 □□과 □□□ 주무관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자료는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고, 17:50경 전산실에 첨부파일 삭제를 요청하여 바로 삭제됨
- * (□□□ 진술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류심사결과 자료를 당연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, □□□ 주무관의 연락을 받고 공고문만 게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
- 18:30경 유선으로 인사담당 계장인 □□□ 사무관에게 서류심사결과 자료가 2시간 정도 외부에 노출(조회수 41건)되었다는 사실을 보고
- 12.9. 오전 □□□ 사무관이 □□과장에게 보고, □□과장으로 부터 인사업무 시 신중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를 받음
- * (□□□ 진술) 2017.12.5. 인사담당자(6급)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후임자가 바로 충원되지 않아 인사업무 경력은 없지만 학교 근무경력 과 업무 책임자로 판단되어 과장과 상의 후 □□□(7급)에게 인사업무 분장

☞ 내부직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고,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한 후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부정채용 하였다는 의혹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정황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종결 처리하되,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심사결과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*(약 2시간)시킨 □□□은 ‘주의’ 촉구
- *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신고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

3. 조치계획

- 면접심사 시 응시자 2명을 알면서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□□□ (면접위원) ‘수사의뢰’ 조치
 - 수사결과에 따라 □□□의 합격 취소여부 결정
- 서류심사 합격자를 홈페이지 게재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사담당자 □□□ ‘주의’ 조치